

원광대 창업동아리 S.O.S 팀 호남·제주권 대학생 창업아이템 BEST 투자유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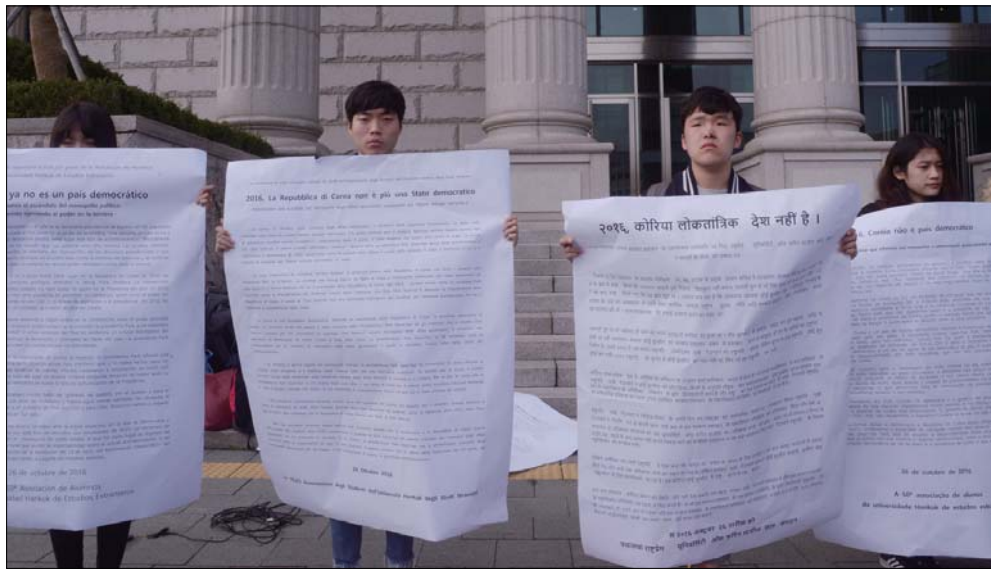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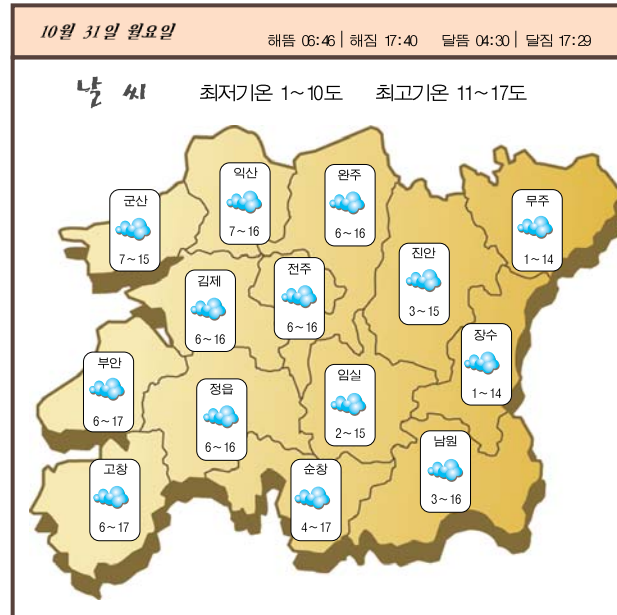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LINC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학생창업동아리 S.O.S 팀이 지난 27일 전남대에서 열린 '2016 호남·제주권 대학생 창업아이템 육성'에서 BEST 투자유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호남·제주권 대학의 창업아이템 발굴과 학생 작품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의 모의투자를 통한 연계를 위해 개최

W.M.G 팀, 데코인 모스그래피티 GOOD 투자유치상

됐으며, 전남대 LINC 사업단과 호남·제주권 산학협력중개센터가 주최하고, 호남·제주권 창업교육거점센터 및 전남대 창업교육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했다. 원광대 S.O.S 팀은 천연해충 차단제인 버민가드로 BEST 투자유치상

을 받았으며, W.M.G 팀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인테리어 데코인 모스그래피티 아이디어로 GOOD 투자유치상을 받았다. 특히 이 두 팀은 지난 2016 산학협력 EXPO에서도 원광대를 대표하는 학생 작품 전시회에 참여해 호평

을 받았다. 원광대 LINC사업단 송문규 단장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지속해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며, "학과 1기업 창업을 비롯한 창업 마인드 고취로 학생들의 청년 기업가 정신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시국선언문 한국외대 학생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본관 앞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및 박대통령 규탄 애국외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아침 식사 거르면 당뇨병 발병위험 26%

아침 식사를 거르면 당뇨병 전(前)단계 위험이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보다 26%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팀이 2011~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 없는 성인 7936명의 아침 결식과 당뇨병 전 단계 위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조사 대상을 국민영양건강조사 당일의 1~2일 전 아침식사를 모두 거른 '아침 결식 그룹'과 한 번이라도 아침을 먹은 '아침 식사 그룹'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아침 결식 그룹은 아침 식사 그룹에 비해 당뇨병 전 단계 가능성이 1.26배 높았다. /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후 15년간의 발전사와 발전상을 담은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최근 발간했다. 심사료비 규모는 지난 66조원으로 2000년 14357000억원보다 4.5배 증가했다. 심사건수는 14억5000만건으로 2000년 4억3000만건보다 3.4배 늘었다. 건강보험 대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2년 41만원에서 지난해 115만원으로 2.8배 확대됐다. 성별로는 같은기간 여자는 45만원에서 125만원, 남자는 37만원에서 105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2조 1544억원에서 16조 2328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전체 연령별 진료비중 가장 높게 증가했다. /뉴시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2000년 약 2000건의 평가가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약 36만건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5년 44.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기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8만8163기관으로 2000년 6만776기관 대비 42.7% 늘었다.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는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보건·의료통계 40개 지표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구체화

김광수 국회의원, '아동친화도시 민관협력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전주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전주시와 김광수 국회의원은 28일 시청강당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민관협력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아동권리현장 낭독, 김광수 국회의원과 박희자 전지역아동센터장의 주제발표, 2부 토론회 등으

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1부 주제발표로 김광수 국회의원과 박희자 센터장이 각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현주소와 '아동복지실현현장의 눈으로 본 진단과 과제-독일의 민·관 협력체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 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주

제로 김광수 국회의원과 김극명 전주비전대 교수,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 8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IT팀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아동의 안전한 생활 보장,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등의 의무사항을 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아동권리인식도 및 아동친화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 학계, 행정, NGO 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가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공감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찾아서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도교육청, 다채로운 기념행사 진행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맞아 전북지역 학교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도내 각급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예행사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학생들이 1929년 일제에 항거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며 벌인 학생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념행사는 각 학교별로 자체 운영 되는 데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계기교육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신문 만들기 ▲학생독립운동 및 학생인권 관련 문예행사 ▲사진 및 동영상 콘테스트 ▲현장체험학습 등이 진행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다"라며 "교육공공체가 함께하는 기념행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www.iwest.co.kr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에너지신산업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태안, 풍력, 사안천, 군산

WIP 한국서부발전주요사업본부

http://www.facebook.com/kowepo

일한 정보기 가득한 한국서부발전의 공식 페이스북 많이 이용해주세요

에너지에서 찾는 미래 에너지신산업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신산업! 한국서부발전이 앞장섭니다.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 한국서부발전이 태양광, 풍력, 소수력, ESS, IGCC 등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신산업으로 깨끗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안, 풍력, 사안천, 군산

WIP 한국서부발전주요사업본부